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김혜원(Kim Hye-Won), 장윤옥(Jang Yoon-O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s' academic stress had an influence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The higher adolescents' academic stress was, the higher academic burnout and the lower academic engagement were. Seco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arental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influenced academic burnout. That is, the level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parental behavior encouraging academic progress of children caused the low academic burnout. And parental behavior encouraging academic progress of children appear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Thir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parental behavior pursuing adequate result, encouraging academic progress and granting their children academic options influenced academic engagement. However,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appeared not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ngagement.

▲주제어(Key words): 학업스트레스(academic stress), 학업소진(academic burnout), 학업열의(academic engagement), 학습관여행동(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청소년(adolescents)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간 단계이자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사회적 요구에 적응해야 하는 시기여서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의 35.4%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5).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우주

의 과도한 경쟁적 교육환경 속에서 시험이나 성적, 공부 등 학업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I. Choi, S. Mo, & J. Kang, 2011). 이는 입시에 치중한 학교교육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인 풍토로 인한 것(K. Lee & J. Kim, 2000)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특목고 및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M. Kim, S. Lee, H. Shin, Y. Park, & J. Lee, 2010).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행은 학업수행

* Corresponding Author : Jang, Yoon-O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 +82-53-950-5928, E-mail: yojang@knu.ac.kr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S. Yoo, 2007), 이러한 변화들은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에서 있어 새로운 적응을 요구(H. Shin et al., 2012)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의 강도도 가중시키고 있다(J. Oh & H. Seon, 2013).

청소년들은 학업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에 대한 정서적 고갈감, 냉소, 무능감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 양상을 경험하며 학업소진을 경험하기도 한다(H. Jo & H. Lee, 2010; Y. Lee, S. Lee, & J. Lee, 2009). 청소년들이 학업소진을 경험하게 되면 학업수행에 있어 활기가 줄어들면서 의욕이 감소하고, 공부에 대한 목적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중요하지 않게 느끼게 되면서, 불평,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 뿐 아니라 무단결석, 학업동기의 상실, 나아가 학업중단에 이르기도 하고(H. Chun & Y. Kim, 2011) 심한 경우에는 또래관계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령기에 경험하게 되는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소진은 예방 또는 극복이 가능하다(Y. Bang, 2016)고 한다. 이에 최근에는 학업소진의 유발 요인 뿐 아니라 학업소진의 극복 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연구자들은 보다 긍정적 개념인 학업열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부정적 개념인 소진과 더불어 열의라는 긍정적 개념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A. Yun & N. Chung, 2011)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정적인 측면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S. Yoon & H. Chin, 2010). 또 청소년들이 학업열의를 갖게 되면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되어 좀 더 새롭고 어려운 수준의 과제에 도전해 보고 싶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S. Lee, 2011). 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을 즐겁게 느끼고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H. Lee, 2010; S. Y. Xia & J. R. Kimmel, 2004).

학업열의는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를 출발로 하여 초기의 선행연구들은 학업열의를 학업소진의 연속선상에 있는 직접적인 반대 개념으로 여겼다(C. Maslach & M. P. Leiter, 1997). 고갈, 냉소, 무능감으로 구성된 학업소진의 세 차원의 반대 차원인 에너지, 몰두, 효율성으로 학업열의를 정의하며, 학업소진 척도의 반대 형태로서 측정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의 개념에 대해 하나의 축에서 이 두 개념이 양 극단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이 개념들을 상대적이면서도 독립적인 개념으로 평가하고 있다(V. Gonzalez-Roma, W. B. Schaufeli, A. B. Bakker & S. Lloret, 2006; W. Schaufeli, M. Salanova, W. B. Gonzalez-Roma & A. B. Bakker, 2002b). 학업열의는 학업소진과 같은 차원에서 반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독립적이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개념이고, 학업소진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C. Maslach, W. B. Schaufeli & M. P. Leiter, 2001)이라는 것이다. 이는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성격(I. Park, S. Lee, B. Choi, Y. Jin, & J. Lee, 2010), 통제감(M. Kim et al., 2010), 완벽주의(H. Jo & H. Lee, 2010), 학업동기(C. Furrer & E. Skinner, 2003), 성실성 및 에너지(G. M. Alarcon, J. M. Edward, & L. E. Menke, 2011),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 및 성취목표 지향(H. Jo & H. Lee, 2010) 등과 같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부모의 양육태도(E. Han, B. Kim, S. Lee, & H. Shin, 2011), 부모의 학업기대(S. Nam, J. Lee, & J. Jang, 2012),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C. Furrer & E. Skinner, 2003), 우호적인 상황 및 사회적지지(G. M. Alarcon, J. M. Edward, & L. E. Menke, 2011) 등과 같이 부모가 제공하는 자원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성실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학생의 자기통제감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지고, 학업동기와 성실성이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과 성취목표 지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열의가 증가한다. 또 부모가 과보호한다고 자녀들이 지각할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학업성취압력을 나타낼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이 증가하고, 교사나 부모가 직접적인 통제 행동을 할수록 학업열의는 낮아진다. 이처럼 청소년 개인이 가진 내적 자원과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자원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의 내·외적 자원 중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더불어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변인들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W. Lee, 2015), 최근 저출산 경향으로 인해 자녀의 수

가 감소하고, 부모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면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한 두 명의 자녀에게 집중되는 부모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함(H. Park, 2014)으로 인해 부모는 자녀의 학습과정에 점점 더 많은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녀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받게 될 뿐 아니라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더구나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사춘기를 겪게 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과도한 학습관여행동을 간섭이나 잔소리로 느끼면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과보호 한다고 지각할수록(E. Han et al., 2011), 부모가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할수록(M. Kim et al., 2010) 자녀의 학업소진이 증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모의 적절한 학습관여행동은 많은 학습량과 진로선택 등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가 많아진 청소년들이 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더욱 안정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부모가 돌봄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은 낮아지고(E. Han et al., 2011),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H. Lee, 2014). 또한 부모가 학업정보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습방식을 존중하는 긍정적 학습관여행동을 할 때 자녀는 학업에 열의를 갖고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Y. Kim, 2007),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은 자녀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업성취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X. Fan & M. Chen, 2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할 때 자녀가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학습관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에 따라 자녀의 학업소진을 낮추고 학업열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특히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청소년의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러한 자원들이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개인이 가진 자원에 따라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스트레스 이론들로 보아 부모가 어떤 학습

관여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른 이들의 조절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절변인을 탐색하고 규명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상황에서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3.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학업스트레스란 학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내외적 자극으로 인해 청소년이 받게 되는 심리적 부담 또는 긴장, 근심, 우울, 초조함과 같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의미한다(K. Park, 2008).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요구(M. Kim et al., 2010), 학업성취 압력(Y. Hong & J. Lee, 2012; S. Nam et al., 2012), 학업과다(Y. Lee, 2009)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학업요구는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의되며 과중한 학업요구, 성취압력, 학업성취 압력, 학업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J. Jang & J. Lee, 2013). 학업성취 압력은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교육적 관심, 성취 및 역할 기대 등에 대해 자녀가 지각한 압력을 의미하는데(Y. Kang, 2003), 이는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S. Park & Y. Chong, 2010). 이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학업스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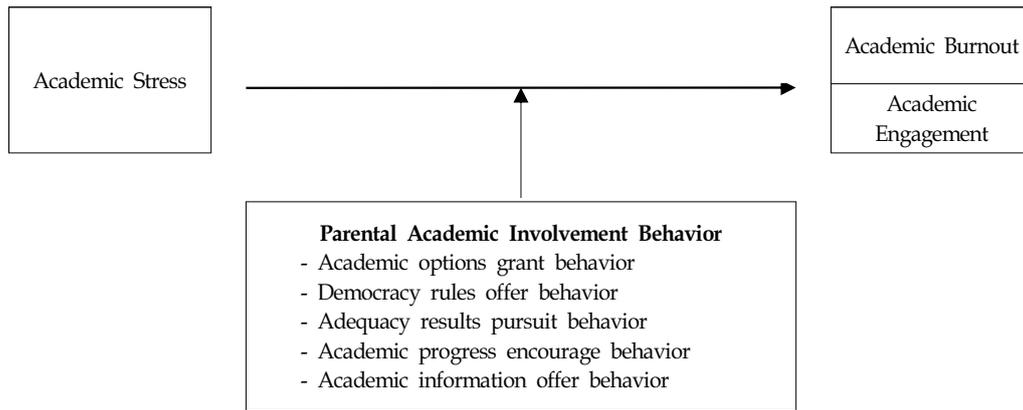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스는 학업에 대한 요구의 지각으로 이러한 용어들을 모두 포괄하는 가장 큰 범주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는 두통, 복통, 긴장, 피로와 같은 신체적 증상과 좌절감,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을 가져올 수 있고, 나아가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 공부에 대한 미움과 회의 등과 같은 심각한 학업소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Y. Lee et al., 2009). 즉 학업소진은 냉소적이고 무관심하게 되어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게 하거나 현재의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 학업을 놓게 하는 등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학업스트레스가 주로 단기간에 신체적 증상을 중심으로 갑자기 일어난다면, 학업소진은 장기간에 걸쳐 정서적 증상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일어나 주위 사건이나 학업에 대해 무감각해지게 한다. 또한 학업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불가피한 것인 반면 공부 환경이나 학업 특성에 그 원인을 둔 학업소진은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부정적인 반응의 하나로 환경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통해 그 과정이 역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처 역시 가능하다(Y. Bang, 2016).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적, 시험, 공부, 교과수업 등에 대한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H. Shin & K. Yu, 2014), 학업성취 압력으로 인해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도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Y. Lee, 2009). 또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켜 학습된 무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N. Son, 199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강할수록 자녀의 학업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자녀는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체념화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H. Choi, 2001). 이와 같이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초래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M. Kim et al., 2010).

한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과 같은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학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주거나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학업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중하는 학업열의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 그동안 학업에 대한 연구들은 학업스트레스(S. Park & H. Kim, 2008), 학습 불안(E. Seo, 2007), 학업소진(J. Lee, 2010) 등 학생들의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듯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조화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면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개인의 성장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S. Yoon & H. Chin, 2010). 이러한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행복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대두된 개념이 열의(engagement)이다.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내적으로 이끌어 내는 동시에 학업에 대해 집중하게 해주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와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하며 높은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W. B. Schaufeli et al., 2002a).

학업열의(engagement)는 흔히 학습몰입(flow)과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W. A. Khan(1990)은 열의를 몰입의 한 상태로, W. H. Macy and B. Schneider(2008)는 몰입을 열의의 한 상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몰입이란 어떤 과제를 해결하거나 활동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최적의 심리적 상태(S. Lee, 2011)로서 열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몰입이 학업 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최고조의 경험인 것과는 달리 열의는 학업에서 나타나는 보다 지속적인 정신상태라는 점에서 열의와 몰입은 서로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W. B. Schaufeli, A. B. Bakker, & M. Salanova, 2006)고 할 수 있다.

C. Maslach and M. P. Leiter(1997)는 열의를 소진의 구성요소인 탈진, 냉담, 효능감의 결여와 직접적인 반대 개념으로 보고 에너지, 참여, 그리고 효능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W. B. Schaufeli et al.(2002b), H. Jo and H. Lee(2010)은 학업열의를 활기, 헌신, 몰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후 V. Gonzalez-Roma et al.(2006) 역시 열의의 중요한 요인을 활기와 헌신으로, 소진의 중요한 요인을 탈진과 냉담으로 제시하며, 소진과 열의는 서로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독립적인 차원임을 증명하였다.

학업열의에 관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 소수이지만, G. M. Alarcon et al.(2011)은 목표, 우호적인 상황, 성실성, 에너지 및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이 학업열의를 유발한다고 하고, C. Furrer and E. Skinner(2003)도 학업동기와 같은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교사 및 상담자의 역할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 역시 학업열의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H. Jo and H. Lee(2010)은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성취목표지향이 클수록 학업열의가 증가한다고 말한다. 반면 A. Assor, H. Kaplan, Y. Kanat-Maymon, and G. Roth(2005)는 교사의 직접적인 통제행동 즉, 교사가 빈번히 지시를 내리거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습의 속도를 방해하는 것,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의견을 허락하지 않는 행동 등은 학생들의 분노와 불안을 야기시켜 학업열의가 발생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한다.

스트레스와 열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직무상황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호텔종사자(J. Ko, B. Kim, & H. Koo, 2010), 공무원(J. Yoo, 2011), 화력발전소 근무자(J. Lee, C. Lee, & W. Yoo, 2012), 아동상담자(J. Choi & H. Kang, 2012), 시내버스 운전자(H. Leu, 2014) 등의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연구들을 통해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를 낮춘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A. Duran, N. Extremera, L. Rey, P. Fernandez-Berrocal, and F. M. Montalban(2006)은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학업상황에서도 학습자의 스트레스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Y. Song(2013)도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한다.

2.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부모는 자녀가 유아일 때는 주로 양육자로서의 역할에 주력하게 되나 자녀가 학령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녀의 학업 문제에 관심을 쏟게 된다. 최근 들어 보다 낮은 연령대 자

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Y. Hong & J. Lee, 2012). 자녀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부모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Y. Hong & J. Lee, 2012). 이에 부모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의 학습에 꾸준히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활동과 학업성취 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라고 한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자녀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부모의 교육적 활동과 참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학교활동이나 프로그램 참가, 학습활동을 조장하는 가정환경, 학업과 관련된 부모와 자녀 간의 활동을 포함한다(J. Kim & M. Choi, 2011).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성취에 대한 압력이나 격려, 부모의 지원, 학업성과에 대한 기대, 학업에 대한 관심이나 조력행동 등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성취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주로 주목해 왔다.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오랜 기간 동안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J. Kim, 2001),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원과 격려를 많이 받는다. 또 E. L. Deci, R. U.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1991)은 학업자율성제공, 통제최소화, 학업정보제공, 감정배려 등과 같은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의사결정력과 성취력을 높여주는 자기 결정력을 향상시킨다고 하고, E. Lim(1998)는 학업정보제공의 관여행동이 자녀의 학업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상태나 과제를 확인한다든지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를 장려해 왔다. Y. Hong and J. Lee(2012)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높을수록 자녀가 자율적으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자녀의 학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또한 늘어나고 이러한 학습관여행동이 늘어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져 자녀의 학업성취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는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지각하지 못하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학업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학업소진으로 이끌 수도 있다(J. Kim & M. Choi, 2011).

3.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과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집중적인 교육투자와 관심을 통해 많은 통제와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녀는 이를 부모의 관심과 지지로 여겨 학업에 있어 더 많은 열의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애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의 학업성취에 대한 요구를 부담감으로 지각하여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업소진에 빠지기도 한다. 즉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있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으로 이어지게 하기도 하고 학업열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X. Fan and M. Chen(2001)은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격려와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업성취를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반면에 부모의 학습관여가 너무 심하여 부모가 자녀를 외적으로 통제하거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자율적 학업동기가 저하된다(A. E. Gottfried, J. S. Fleming, & A. W. Gottfried, 1994).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으며(J. Lee & Y. Kim, 2000),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잔소리와 간섭을 하는 등 높은 수준의 압박을 가하면 자녀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Y. Ryu, 1995).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의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돌봄을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학업소진이 감소하고 어머니의 소진과 자녀의 소진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E. Han et al., 2011).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 회복탄력성 및 학업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H. Lee, 2014)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의 양육태도가 학업소진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학업소진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일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W. Lee, 2014).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참여는 자녀의 교육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S. Lee and H. Choi(2007)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가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도는 높

아지고, 시험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한다. 부모의 학습관여형태를 학업정보제공과 자녀학습방식 존중을 긍정적인 학습관여형태로, 학습 성과 압력은 부정적인 학습관여형태로 분류한 Y. Kim(2007)는 긍정적인 학습관여형태가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 자녀들의 성적과 직결된 학업성취일 것이며,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학습관여를 하게 된다. 이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바람직한 태도나 학습에 관여하는 방법은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E. L. Deci, R. U. Vallerand, L. G. Pelletier and R. M. Ryan(1991)에 따르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부모가 학습방법을 존중해주고 어려운 점을 조언하거나 학습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M. Han and A. Yoo(1996)은 아동에게 부모의 긍정적 지원은 아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심리적인 부적응 및 공격적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이나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변인이 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중학교의 3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과는 다른 학습환경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고, 부모가 학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과 기대를 하게 되므로 학업성취에 대하여 강한 부담감을 지각한다. 그 중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3년간의 중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자신만의 학습방식을 갖추고 학업수행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고입을 앞두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시기이기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313)

Variable	Categories	N(%)	Variable	Categories	N(%)
Gender	Male	153(48.9)	Family members	Parents	36(11.5)
	Female	160(51.1)		Parents+Brothers and sister	221(70.6)
Father's age	40 below	16(5.1)		Grandparents+Brothers and sister	22(7.0)
	41 - 50	249(79.6)		Etc	34(10.9)
	51 and over	48(15.3)	Mother's age	40 below	41(13.1)
Father's education level	Below middel school	4(1.3)		41 - 50	257(82.1)
	High school	89(28.4)		51 and over	15(4.8)
	College	41(13.1)	Mother's education level	Below middel school	4(1.3)
	University	155(49.5)		High school	110(35.1)
	Graduate school	19(6.1)		College	44(14.1)
	No answer	5(1.6)		University	135(43.1)
Father's job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men	16(5.1)		Graduate school	17(5.4)
	self-employment	89(28.4)		No answer	3(0.9)
	Temporary	9(2.9)	Mother's job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men	4(1.3)
	Blue collar	32(10.2)		self-employment	54(17.3)
	Office	79(25.2)		Temporary	7(2.2)
	Service industry	14(4.5)		Blue collar	18(5.8)
	Executive directorate	27(8.6)		Office	60(19.2)
	Profession	17(5.4)		Service industry	33(10.5)
	Unemployed/Housewife	3(1.0)		Executive directorate	10(3.2)
	Etc	24(7.7)		Profession	22(7.0)
	No answer	3(0.9)		Unemployed/Housewife	89(28.4)
Home life level	Good	39(12.5)		Etc	15(4.8)
	Fair and good	113(36.1)		No answer	1(0.3)
	Fair	137(43.8)	Academic achievement	Good	53(16.9)
	Fair and poor	23(7.3)		Fair and good	78(24.9)
	Poor	1(0.3)		Fair	85(27.2)
Total	313(100)	Fair and poor		62(19.8)	
		Poor		35(11.2)	
Total	313(100)	Total	313(100)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6년 5월 3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하다고 판단된 질문지의 문항 내용을 수정·보완한 다음 2016년 5월 10일~12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중학교의 3학년 남·여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연구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교의 담당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학생들에게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326부였으며 부실 기재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31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B. Park and S. Park(2012)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성적, 수업시간, 학습 중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받거나 스스로 느끼는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스트레스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2)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 척도는 Y. Lee(2009), J. Lee(2010)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과 학습내용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탈진감, 냉담감, 무능감, 반감, 불안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소진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3) 학업열의 척도

학업열의 척도는 W. B. Schaufeli et al.(2006), H. Choo and W. Sohn(2011), J. Lee and S. Lee(2012)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습활동과 학습과정에 대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열정, 헌신, 효능감, 몰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학업열의의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각 문항은 전공교수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았다.

4)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는 중학생들 대상으로 수행된 J. Kim(2001)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정도는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2문항을 제외한 28문항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습선택권부여 행동(6문항)으로, 요인 2는 자녀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녀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등 학습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의견을 자녀와 교환하는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민주규칙제공 행동(5문항)으로, 요인 3은 학습목표를 설정하는데 자녀를 참여시켜서 적정한 목표를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거나 실패했을 경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정성과추구 행동(6문항)으로, 요인 4는 자녀의 학습행동이나 성적을 형제, 자매, 친구 등과 비교하지 않고 자녀가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도록 격려하는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진보격려 행동(5문항)으로, 그리고 요인 5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 등을 탐색하여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제공하거나 함께 탐색하는 등의 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업정보제공 행동(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학습선택권부여 행동이 .88, 민주규칙 제공 행동이 .61, 적정성과추구 행동이 .84, 학업진보격려 행동이 .80, 그리고 학업정보제공 행동이 .90이었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 및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2>와 같다.

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소진을 40.6%, 학업열의를 1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소진($\beta=.638$)과 학업열의($\beta=-.375$) 모

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고, 학업열의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in Adolescents (N=313)

variables		M(SD)	range
Academic stress		2.75(.69)	1~4.76
Academic burnout		2.70(.68)	1~5
Academic engagement		2.81(.77)	1~5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	3.59(.80)	1~5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	3.64(.66)	1.6~5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3.31(.74)	1~5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3.56(.85)	1~5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	3.11(.89)	1~5

Table 3. Intercorrelations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and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in Adolescents (N=313)

variables	1	2	3	4	5	6	7
1. Academic stress							
2. Academic burnout	.64**						
3. Academic engagement	-.38**	-.56**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4.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	-.34**	-.32**	.36**				
5.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	-.34**	-.29**	.27**	.55**			
6.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	-.25**	-.38**	.40**	.57**	.43**		
7.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43**	-.26**	.14*	.42**	.51**	.31**	
8.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	-.22**	-.29**	.33**	.34**	.40**	.64**	.31**

* $p<.05$ ** $p<.01$ *** $p<.001$

Table 4. The Effect of Adolescents' Academic Stress on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N=313)

Independent variable	Academic burnout		Academic engagement	
	B	β	B	β
Academic stress	.628	.638***	-.418	-.375***
F	213.856		50.940	
R ²	.406		.138	

*** $p<.001$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에 따르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들을 표준화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VIF 수치를 확인한 결과 학업스트레스,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그리고 학업스트레스와 학습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의 VIF는 1.3-2.8에 분포하고 있어 독립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을 45.5% 설명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beta=.609$)와 조절변수인 걱정성과추구 행동($\beta=-.236$)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걱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1단계와 동일하게 제변수들이 학업소진의 4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beta=.627$)와 조절변수인 걱정성과추구 행동($\beta=-.243$)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걱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상호작용항($\beta=-.127$)이 학업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선택권부여 행동, 민주규칙제공 행동, 걱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정보제공 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평균($M=2.75$)과 표준편차($SD=.69$)를 기준으로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낮은 청소년들을 학업스트레스 하 집단($M=1.65, SD=.31$), 학업스트레스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은 청소년들을 학업스트레스 상 집단($M=3.80, SD=.30$)으로 구분하였다. 또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의 평균($M=3.56$)과 표준편차($SD=.85$)를 기준으로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뺀 값보다 낮은 청소년들을 학업진보격려 행동 하 집단($M=2.13, SD=.47$), 부모의 학업진보격려 행동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편차를 더한 값보다 높은 청소년들을 학업진보격려 행동 상 집단($M=4.83, SD=.15$)으로 구분하여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2>과 같다.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N=313)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cademic burnout	
			Level 1	Level 2
	B	β	B	β
Academic stress(A)	.599	.609***	.593	.627***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B)	.003	.004	.001	.002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C)	-.019	-.019	-.020	-.020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D)	-.217	-.236***	-.224	-.243***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E)	.076	.095	.079	.099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F)	-.018	-.023	-.025	-.033
A × B			.035	.055
A × C			.014	.023
A × D			-.031	-.054
A × E			-.075	-.127*
A × F			.057	.096
Constant		5.828		5.727
F		44.425***		24.683***
adjusted R ²		.455		.455

* $p<.05$ ** $p<.01$ *** $p<.001$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거나 많이 하거나 학업소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보다 학업소진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업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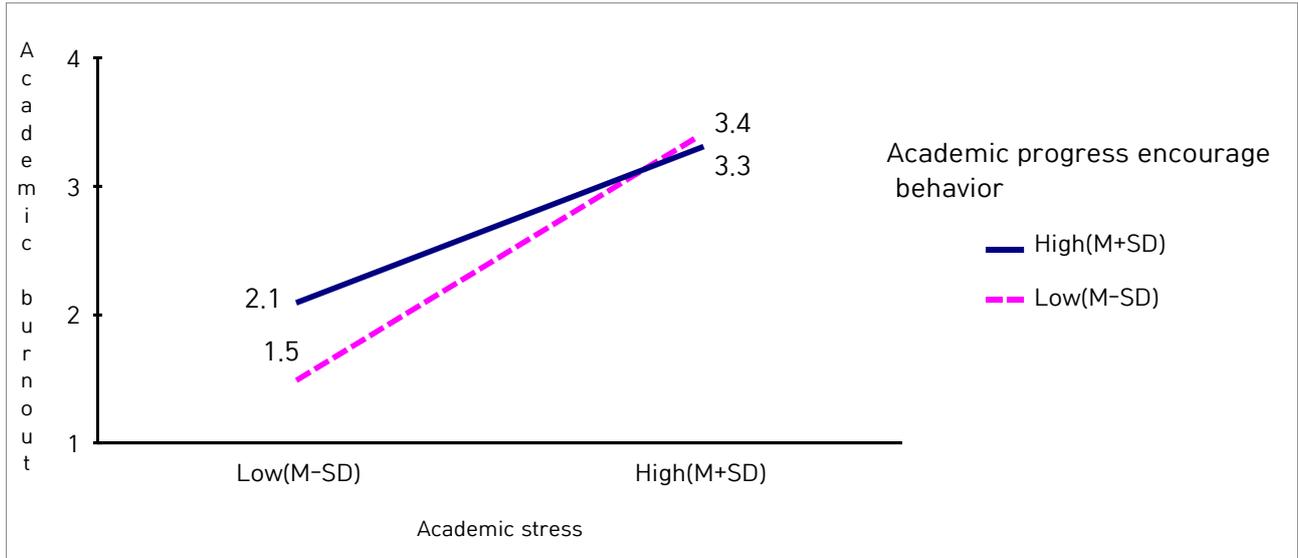


Figur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 on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Table 6.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Academic Involvement Behavior on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Engagement (N=313)

Dependent variable	Academic engagement			
	Level 1		Level 2	
Independent variable	B	β	B	β
Academic stress(A)	-.343	-.308**	-.325	-.292**
Academic options grant behavior(B)	.153	.159*	.148	.154*
Democracy rules offer behavior(C)	.039	.034	.050	.043
Adequacy results pursuit behavior(D)	.206	.198**	.218	.209**
Academic progress encourage behavior(E)	-.160	-.176**	-.162	-.179**
Academic information offer behavior(F)	.105	.121	.113	.131*
A × B			-.069	-.094
A × C			.006	.008
A × D			-.006	-.009
A × E			.083	.124
A × F			-.020	.030
Constant		7.207		6.553
F		19.601***		11.050***
adjusted R ²		.263		.262

* $p < .05$ ** $p < .01$ *** $p < .001$

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열의를 26.3% 설명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beta=-.308$)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beta=.198$), 학업진보격려 행동($\beta=.176$), 학습선택권 부여 행동($\beta=.159$)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1단계보다 0.1% 감소하여 제변수들이 학업열의의 2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스트레스($\beta=-.292$)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beta=.209$), 학업진보격려 행동($\beta=.179$), 학습 선택권부여 행동($\beta=.154$), 그리고 학업정보제공 행동($\beta=.131$)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적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 학업정보제공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습선택권부여 행동, 민주규칙제공 행동,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업정보제공 행동의 상호작용항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학업소진을 줄이고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중학교의 3학년 학생 313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업스트레스 척도, 학업소진 척도, 학업열의 척도,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아지고, 학업열의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중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게 하고 학업에 대하여 냉소적으로 변하게 하여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 학업열의는 감소시킴(Y. Song, 2013)으

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즉 학업스트레스는 정서적 고갈과 학업에 대한 냉담, 무능감을 느끼게 하여 학업소진을 증가시키며, 정서적 활기와 학업에 대한 헌신, 효능감을 덜 느끼게 하여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스트레스는 학업에 소요되는 에너지 과정을 통해 학업소진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W. B. Schaufeli & A. B. Bakker, 2004)와 일치하며,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심각한 무능감, 공부를 싫어하게 되는 마음과 회의 등 심각한 학업소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Y. Lee et al., 2009)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직무열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A. Duran et al., 2006; J. Leu, 2014), 학업과다와 부모성취압력이 학업소진을 증가시키고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J. Cho & M. Kim, 2013)와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직무소진은 높아지지만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는 S. Park(2016)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르다.

지나친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학업에 대한 무능감을 느끼며 공부가 싫어지고 회의적이 되는 학업소진에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학업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켜 학업에 충분히 만족스럽게 집중을 가져오는 학업열의의 상태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업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나친 교육열과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당장은 학업스트레스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적정성과추구 행동이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자녀와 의논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실패시에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나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이 설정한 적정목표이므로 목표달성의 동기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고, 실패에 대해 비난받기 보다는 다음 목표달성을 위해 부모와 함께 문제해결을 해

나감으로써 학습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스트레스와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진보격려 행동의 상호작용항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이나 많이 하는 청소년들 간에 학업소진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이 부모가 학업진보격려 행동을 적게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소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스트레스 정도가 청소년의 학업성취 정도로 결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은 이미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학습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한 노력 또한 거의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학업성취도 역시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학업적 한계를 이겨내도록 지속적으로 학업진보를 격려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더 심한 부모의 간섭과 압박으로 여겨져 학업에 더욱 냉담해지는 학업소진을 초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학업스트레스가 낮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선을 다해 조금씩 학업적 진보를 하도록 많이 격려하는 것이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보다 더 부모의 간섭으로 여겨지고 또 다른 학업스트레스로 여겨져 학업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로부터 학업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받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고 학업성취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연구결과(J. Kim, 2001)와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녀의 소질과 능력을 무시한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잔소리와 간섭을 하면 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연구결과(Y. Ryu, 1995)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학업스트레스와 조절변수인 걱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습선택권부여 행동의 순으로 학업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학업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부모가 걱정성과추구, 학습선택권부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학업진보격려의 학습관여행동을 적게 할수록 학업열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걱정성과추구 행동이나 학습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자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학습선택권부여 행동은 학습과 관련하여 자녀 스스로 선택·결정하게 하고 하는 행동들로 자녀는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아효능감, 자신감 등을 얻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 학업열의가 높아져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학습관여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자녀의 학업과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W. Lee, 2014)와 일치하며, 중·고등학생이 부모학습관여행동 정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내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J. Kim & M. Choi, 2011)와 다소 유사하다고 하겠다.

반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 중 학업진보격려 행동만이 학업열의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는 다른 사람들과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자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내도록 격려한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극복되도록 요구되는 한계가 너무 높게 지각된다거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로 인지되어 학업열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성취기대 및 역할기대가 클수록 자녀에게는 더 큰 압력으로 지각되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J. Lee & Y. Kim, 2000)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학습성과압력은 부정적인 학습관여형태로 자녀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Y. Kim(2007)의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가 걱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학습의 시간, 장소, 방법, 내용 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선택권 부여 행동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방법이나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등의 학업정보제공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학업열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과는 다르게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이를 조절하는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소진은 만성적인 학업스트레스와 과도한 학업요구로 인해 발생하므로 부모가 적절한 학습관여행동

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를 완충시켜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조절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학업열의는 학습활동과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로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학업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학습관여행동만으로는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부모가 여러 가지 학습관여행동 중 적정성과추구의 학습관여행동을 많이 할수록 학업소진이 낮아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높이는 데는 적정성과추구 행동, 학업진보격려 행동, 학습선택권부여 행동과 같은 다양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다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볼 때 학교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학업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개발·강화하도록 학습과 생활에 코칭을 보다 확대하고, 부모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면 학업스트레스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디스트레스(distress)가 아니라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스트레스(eustress)로 지각되는데 도움이 되는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학업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자녀들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고 학업열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학습관여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내리며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학업스트레스에 따른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에 있어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 정도가 초·중·고등학교 학년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소진을 피하고 학업열의를 경험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은 부모 외에도 교사 또는 친구와 많은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그리고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교사 또는 친구 변인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인 외에도 청소년 개인이 가진 자원이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

에서도 조절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조절효과를 탐색한 결과,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은 학업소진에만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학업열의에는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학업소진 뿐만 아니라 학업열의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Alarcon, G. M., Edward, J. M., & Menke, L. E. (2011). Student burnout and engagement: A test of the conservation of resources theory. *The Journal of Psychology, 145*(3), 211-227.
- Assor, A., Kaplan, H., Kanat-Maymon, Y., & Roth, G. (2005). Directly controlling teacher behaviors as predictors of poor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girls and boys: The role of anger and anxiety.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397-413.
- Back, M. S. (2001). *Effects of academic environments and coping on academic burnout i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Bak, B. G., & Park, S. M.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cademic stress scal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6*(2), 563-585.
- Bang, Y. M. (2016). *Role of stress coping type on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Chang, H.-W., Kim, J.-H., Auh, S., & Jung, I.-K. (2012). An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on the life-style behaviors and mental health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57-72.
- Chang, K. M. (2005).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control ability on their perceived school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1-16.
- Cho, J. Y., & Kim, M. S. (2013). Gender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among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 477-497.

- Cho, K. R. (2007). *Academic stress symptoms of 3rd year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academic stress reasons and counter meas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Choi, H.-S. (2001). *On the relation among parents' academic pressure recognized by elementary pupils, their psychological burden and their response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Choi, I. J., & Mo, S. H. (2011). *A study on mental health improvement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Seoul,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Choi, J. H., & Kang, H. A. (2012). Job stress, personal resources, burnout, and work engagement in child counselo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8(5), 232-252.
- Choo, H., & Sohn, W. (2011). Valida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s(UWES-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4(4), 897-920.
- Chun, H., & Kim, Y.-G. (2011). The effects of academic burnout on academic achievement and learning persistence among students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3(8), 475-491.
- Deci, E. L., Vallerand, R. U., Pelletier, L. G., & Ryan, R. M. (1991). Motivation and education: The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26(3), 325-346.
- Duran, A., Extremera, N., Rey, L., Fernandez-Berrocal, P., & Montalban, F. M. (2006). Predicting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in educational settings: Assessing the incremental validity of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beyond perceived stress and general self-efficacy. *Psicothema*, 18(1), 158-164.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Furrer, C., & Skinner, E. (2003). Sense of relatedness as a factor in children's academic engage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1), 148-162.
- Gonzalez-Roma, V., Schaufeli, W. B., Bakker, A. B., & Lloret, S. (2006). Burnout and engagement: Independent factors or opposite po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1), 165-174.
- Gottfried, A. E., Fleming, J. S., & Gottfried, A. W. (1994). Role of parental motivational practices in children's academic intrins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1), 104-113.
- Han, C. H., & Cho, Y. A. (2014). Moderating effects of optim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bility and academic stress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205-231.
- Han, E. A., Kim, B., Lee, S. M., & Shin, H. J. (2011). Relationship of parental bonding styles, parent burnout, and children academic burnout.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7(1), 270-293.
- Han, M. H., & Yoo, A. J. (1996).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 173-188.
- Han, S.-A. (2006). Worry contents and stress degree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 of adolescence.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2), 111-136.
- Han, S.-Y. (2012). A study of relationship among physical symptoms, mental health according to stress factor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3(12), 5800-5807.
- Hong, E. J.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dependence upon institutes and home study papers by mothers' accomplishment-oriented pressure upon their young children's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Hong, Y.-J., & Lee, J.-Y. (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tween parental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2), 325-342.
- Jacobs, S. R., & Dodd, D.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 Jang, J. Y., & Lee, J. Y.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vy academic demands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2), 247-265.
- Jo, H., & Lee, H. (2010).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goals on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academic engage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12), 131-154.
- Kahn, W. A. (1990). Psychological conditions of personal engagement and disengagement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3(4), 692-724.
- Kang, Y. C. (2003). *O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recognized by the elementary pupils, their academic self and their attitude toward i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Changwon, Korea.
- Katariina S. A., & Katja. U. (2014). School burnout and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demands-resources model.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1), 137-151.
- Kim, J. A. (2015). The influence of academic stress upon emotional problems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6(3), 359-377.
- Kim, J. D. (2001). *The effect of the type of parent's commitment to study on the academic motivation of the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 Kim, J. U., & Choi, M. S. (2011).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perceive by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2(5), 1645-1661.
- Kim, J., Kim, S., & Jung, I.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4), 241-269.
- Kim, M. A., Lee, S. M., Shin, H. J., Park, Y. M., & Lee, J.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demand and academic burnout: The role of control.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1), 69-84.
- Kim, Y. S. (2007). *The relationships of mothers' learning involvement type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with academic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Ko, J. Y., Kim, B. Y., & Koo, H. J. (2010). The study about employees' burnout and job engagement using JD-R model.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13(5), 47-65.
- Lee, H. (2014). *The relationship among th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f high school student,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N. (2006). *Mediating effects on ego-resiliency among emotional clarity, emotional expressivenes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S. (2010). *A study on how to enhance flow experience in learning: Based on structural model analysis and exploration of flow chann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S. (2003). *The influences of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ego-resilience on stress perce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2010). *Age-related differences of academic burnout in Korean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G., & Kim, Y. H. (2000). Parental expectations of academic performance and adolescents' adjustment behavio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12), 145-158.
- Lee, J., & Lee, S. M. (201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KAEI).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4(1), 131-147.
- Lee, J., Lee, C., & Yoo, W. (2012). The Influence of the thermal powerplant workers' job demands on job engagement & job burnou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 collective-efficac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9(1), 27-45.
- Lee, K. S., & Kim, J. H. (2000). The effects of study stress coping training program on the reduction of study stress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5(1), 43-59.
- Lee, M. J.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Lee, S. H., & Choi, H. R. (2007).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parental involvement in education, their ego-resiliency, test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2), 321-337.
- Lee, S. J. (2011).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social anxiety i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2), 89-113.
- Lee, S. M. (2012). *Elementary school·Middle school·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burnout process and path analysis*. Seoul, Korea: Jipmoondang.
- Lee, S.-J. (2011). The effect of flow on learning and self-efficacy on college adapt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25(2), 235-253.
- Lee, S.-L.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W.-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in the rel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learning involvement and academic burnou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B. (2009). *Development of adolescent's academic burnout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B., Lee, S. M., & Lee, J. (2009). Development of Korean academic burnout scal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5(3), 59-78.
- Leu, H.-S. (2014). *Effects of job stress, core self-evaluation and coping behaviors on job engagement of city bus driv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Lim, E. M. (1998).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motivation, parental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acy, W. H., & Schneider, B. (2008). The meaning of employee engagement. *Industrial and Organization Psychology: Perspectives on Science and Practice*, 1(1), 3-30.
- Malecki, C. K., & Demary, M. K. (2003). What type of support do they need interesting student adjustment as related to emotional, informational, appraisal, and instrumental support.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3), 231-252.
- Maslach, C., & Leiter, M. P. (1997). *The Truth About Burnout*. San Francisco: Jossey-Bass.
- Maslach, C., Schaufeli, W. B., & Leiter, M. P. (2001). Job burnou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397-422.
- Moon, S.-J.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Nam, S.-P., Lee, J.-Y., & Jang, J.-Y. (2012). The effect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n the academic burnout: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tr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3), 219-230.
- Oh, J.-H. (2013).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rela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of parents and academic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 Oh, J.-H., & Seon, H.-Y. (2013). The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academic stres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3), 1981-1994.
- Park, H.-Y. (2014). Low fertility and the effect of parental resources on the education gap.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1(4), 269-290.
- Park, I. G., Lee, S. M., Choi, B. Y., Jin, Y., & Lee, J. Y. (2010).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academic burnou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1), 81-93.
- Park, K.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hild-perceived mother's expectation level and school work stress: Focusing on stress coping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H. (2015). *The relation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that elementary students perceive, ego-resilience and school life adapt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higher and lower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grou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Park, S. H. (2016). *The effects of counselor's job stress on burnout and work engagement: The moderating role of recovery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Park, S. H., & Kim, H. H.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nd adolescents' academic stress and learned helpless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3), 159-182.
- Park, S. Y., & Chong, Y. S. (2010).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s among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perceived academic stress and internalization problems in boys and girl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3(1), 17-32.
- Park, Y. A. (2011). The influences of stress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3), 107-120.
- Ryu, Y.-J. (1995). *A relationship between the achievement pressure of mother and the stress of her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Schaufeli, W. B., & Bakker, A. B. (2004).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293-315.
- Schaufeli, W. B., Bakker, A. B., & Salanova, M. (2006). The measurement of work engagement short questionnaire: A cross-national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6(4), 701-716.
- Schaufeli, W. B., Martinez, I. M., Marques P.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a).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alez-roma, V., & Bakker, A. B. (2002b). The measurement of burnout and engagemen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1), 71-92.
- Shin, B. C. (2012). *The effects of parents' study achievement pressure and stress from parents' expectation on study exhaustion in gifted and general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 Shin, H. J., & Yu, K. L. (2014). Connectedness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cademic burnou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367-393.
- Shin, H. J., Kim, B. Y., Lee, M. Y., Noh, H. K., Kim, K. H., & Lee, S. M. (2011).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2), 133-151.
- Shin, H., Choi, H., Lee, M., Noh, H. K., Kim, K., Jang, Y., & Lee, S. M. (2012). The effects of coping strategies on academic burnout: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focused on suppression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2), 289-309.
- Son, N. J. (1998). *Investigation 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home environment, children's self - evaluation and learned helpless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 Song, Y. H. (2013).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ask value, academic burnout, learning satisfaction and persistence in an e-learning cours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9(3), 171-187.
- Statistics Korea. (2015).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Xia, S. Y., & Kimmel, J. R. (2004). Visitors' flow experience while browsing a web site: Its measurement, contributing factors and consequ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0(3), 403-422.
- Yang, H. J. (2004). Factors affecting student burnout and academic achievement in multiple enrollment programs in Taiwan's technical-vocational colleg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4(3), 283-301.
- Yoo, J. H. (2011). *The impact of disturbing and conductivity stressor on job burnout and job engagement: Apply the job demand-resourc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Korea.
- Yoo, S. H. (2007). Student expectation and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0(1), 355-374.
- Yoon, S. G. (2004).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and experience and adaptation of stres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Gyeonggi, Korea.
- Yoon, S.-M., & Chin, H.-C. (2010).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positive psychotherapy

inventor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3), 707-732.

Yun, A.-R., & Chung, N.-W. (2011). A review of counselor's burnou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2), 231-256.

- Received: July 15. 2016
- Revised: September 23. 2016
- Accepted: October 23. 2016